

걸림 없는 성질 수행지표로 삼아



○바람이 불 때마다 덩그렁 덩그렁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풍경. 항상 방갈하지 않고 정진하려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바람

다는 말입니까?

이에 해능이 답했다. "두사람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에서 해결된다는 깨우침을 주는 유명한 공안이다.

■용

비나 바람을 일으키거나 물고 다니는 대표적 동물이 용이다. 특히 물개바람(회오리바람)은 꼬리가 땅에 붙은 거대한 용의 형상을 연상시키며 바닷물이 회오리바람과 함께 휘감겨 기둥 형태로 높이

풍경은 선문담에도 나온다. 서한 28조 가야사다스님이 승가난재스님에게 출가했을 때 승가난재스님이 물었다. "방울이 우느냐 바람이 우느냐"는 질문에 "바람도 아니요 방울도 아니며 제마음이 우니다." 풍경은 신라 감은사지 출토의 청동풍경과 백제 마곡사지 출토의 금동풍경이 대표적이다.

■부채

불교에서 부채는 부처님을 모셔오는 시련행렬때 사용하는 의식용으로도 쓰이



○바람에 천의가 날리는 비천상. 사진은 강화 보문사 대웅전 천상의 비천상

있다. 즉 천은 광명을 받아들이는 곳이면 서 세속세계를 종교세계로 향해 열어놓은 통목을 표상한다. 그림자가 어릿허거나 빛소리, 바람소리가 실려는 창에는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 또한 투사되어 있어 많은 시의 소재가 되고 있다.

■풍류(風流)·풍수(風水)

원공법사가 세운 불교장신에 기반하여 삼국통일을 이끌었던 화랑도는 풍류(風流)와 풍월(風月)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는 대자연에 노닐며 몸과 마음을 닦는 의미가 있다.

이름 보면 화랑도의 바람은 공월과 풍류라는 말을 통해 자연의 섭리나 이방을 상징했다. 자연에서 일깨워지는 시경과 인생의 섭리, 한묘의 도는 곧 풍월로 표상했으며 나아가 8계를 지랄 것을 서원하는 국가적 불교행사인 팔관회로 표현했다.

또 짐의 털을 본다든가 무덤자리를 정하는 등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깊게 스며있는 풍수(風水)는 인간과 기후와 풍토 그리고 물의 조화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조선국사는 자생 풍수사상의 원조를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은 풍수풍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깃발

바람에 휘날릴 움직이는 기(旗), 사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는 고통을 견뎌내는 상징물로도 쓰인다. 구신스님의 부채.

찰에서 불전이나 불당앞에 세우거나 올리는 당번(幢幡)은 기도나 법회등 의식이 있을때 부처님과 보살의 위신으로 마군(魔軍)을 굴복시키는 표시이다.

기(旗)는 죽은이를 심판하는 명계(冥界)의 풍이며 지장의 화신으로 불리는 열라대왕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한다.

또 남방불교를 전한 가락국 수로왕의 왕후인 허황옥공주는 원래 인도와 아유타국 공주였다. 수로왕은 궁에 하늘의 상제가 배필로 공주를 맞이하려는 계시에 따라 유가천으로 하여금 땅산도에 가서 기다리게 하였다. 그런데 왕의 말대로 남서쪽 바다에서 붉은 꽃을 단 배가 붉은 기를 휘날리며 왔는데 허황옥공주가 타고 있었다.

가락국은 허황옥공주가 왕후가 되자 점점 국가와 불교가 융성해졌고 백성들은 허황옥이 죽은뒤 은혜를 기리기 위해 붉은기를 달고 배가 들어온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고 하고, 붉은 기는 영복의 예보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찰에는 당간지주가 많이 남아 있는데 깃발모양의 번이나 여러가지 비단을 거는데 쓰인다.

김원우 기자(wkim@buddhapa.com)

우주의 기운...생물 성장에 작용

처마끝 풍경은 수행자 나태함 경책 범구

부채 전법의 도구 깃발 조사공안에 등장

솟아오르는 것을 '용권' 또는 '용솟음 현상'이라고 한다.

용은 반인반사(半人半蛇)로 표현되는데 불교를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신장으로 부각되어 호법룡 호국룡으로 믿어졌다.

■풍경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울리는 풍경은 법담이나 불탑의 처마에 매달아 놓는 불구이다. 풍경은 방울 경세(驚世)의 의미로 고기모양의 얇은 금속판을 매달아 두는 것이 상례인데 이는 항상 물고기처럼 깨어있어, 공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바람불면 '덩그렁 덩그렁' 소리로 고요한 사찰을 살아있게 하여 수행자의 방일이나 나태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고 도(通)의 전수로도 사용됐다. 지눌스님이 해심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고 있던 부채를 주었다. 이에 해심은 "전에 스승의 손에 있던 것, 지금은 제자 손바닥으로 왔네. 만약 미친듯 달리면 맑은 바람 부채 일으켜도 무방하리."라고 읊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부채를 전함으로써 도를 전수했다고 한다.

또 무속에서 부채는 제의기구의 필수품인데 승려 3명이 나란히 그려진 삼불상은 불교와 무속이 슬합하는 과정에서 그려진 무구이다.

■창

창은 바람세게로 향한 열림의 상징이다. 바람을 맞이하는 풍로가 되는데 불교에서는 창을 광명의 들목으로 표현하고



○깃발이 움직이는가? 바람이 움직이는가? 6조 해능대사의 답을 청겨보자. 사진은 영신재 모습.

‘청’

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따라 바람따라 살다가 가라하네. 노래로도 불리는 이 선시처럼 바람은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고 걸림없는, 자유자재의 상징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는 무상의 존재인 바람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은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다. 자유롭고 어떠한 것에도 걸림없는 바람처럼 온갖 생활잡사, 속박과 번뇌에 걸리지 말고 수행정진에 일로매진 하라는 가르침이다.

바람은 우주의 승과 기운을 나타내며 지(地)수(水)화(火)와 함께 일체의 물질을 구성하는 4대(四大)중 하나의 요소로 꼽힌다.

풍(風)대는 생물을 성장시키는 작용을 하고 지(地)대는 땅으로서 팍팍함의 본질을 보여주는 작용을 하고, 수(水)대는

습성을 모으는 작용을 한다. 또 화(火)대는 뜨거움을 본질로서 성숙시킨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다시 바람을 비롯한 4대 흩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바람은 동서남북의 기본 방위뿐만 아니라 동남, 동서 등 중간방위의 기운이 되면서 공간구성본, 또는 분할본의 준거가 된다.

바람은 부드러운 때는 풍요의 승결, 살의 악성성 등을 나타내기도 하나 풍상(風霜), 들중, 광풍 등에서 보는 바람같이 인생의 험한 역경이나 폭력, 파괴를 상징하기도 한다.

■육조의 설법

육조 해능스님이 남태현 제지사에 묵고 있을 때였다. 거센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두스님이 싸우기 시작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입씨름은 끝을 보지 못했다. 해능스님이 이를 듣고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강사가 물었다. "그러면 무엇이 움직인

일주문에서 다비까지

절에서 배우는 불교

사찰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사찰에 승서는 불교의 사상과 정인론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속에는 불교의 사상이, 부처님의 승결이, 그것을 만든 장인의 불심과 합일된 정인론이 살아 있다. 하지만 숭앙 그윽한 사찰 속에 간추려져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불교의 사상과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집 이 책은 일주문을 비롯한 산문을 시작으로 각 사찰의 전각, 불·보살상, 탱화를 비롯한 각종 불화와 내·외형장엄물, 의식구, 장엄구, 공양구, 생활용구, 상징물 등을 사진과 함께 담아 사찰의 전부와 그 속에 깃든 불교의 사상과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45항목에 걸친 사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절을 찾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들고 찾기를 권한다. 일주문으로 들어와 절에서 접하는 것까지 조형물, 상징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사찰을 둘러보고 일주문을 나설 때는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해자스님은 중적 출주에서 태어나 도산사에서 동진승기하여 황당스님으로 오/고 도산사에서 많은 소임을 살았다. 풍도사 승가대학에서 관학연, 승공사 선원에서 수산인가를 했다. 수백산 도안사를 창건했고 도산사 부주지 등의 소임을 살면서 청학원을 불태워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12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스님은 17년간 해마다 노환구 찾아서지 할어니를 초청하여 권로위안인치를 베풀어왔고 불우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출주에 자재양생원을 설립했다. 저서로는 <사립노년회와 살가 어디 그리 쉬운가> <선종명상집> 등이 있다.

우리출판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종·본·스·님·의·전·생·찾·아·떠·난·길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나는 나로서 영원히 존재한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보면 영혼불멸에 대한 제법적 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신비의 베일에 싸여 있는 사후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록들을 추적해 보았다. 이로써 죽음이란 단지 맞이 죽음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진시황도 죽었고 일세를 풍미하던 영웅호걸도 모두 죽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정된 죽음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번 태어난 생명은 죽음을 통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구원의 문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무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자정을 깨우쳐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사람들은 사느라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가와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알라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앎을알이의 본성(本性)을 깨우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 이외의 것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자성(自性)을 깨우치면 되는 것이다. 자성을 깨우치고 선업을 닦아야 흰빛 밝은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종본스님 위문/본문 249면 / 값 7,000원

우리출판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